

도요타, 국내에서 新공장을 가동시킨 이유

도요타는 18년 만에 미야기현에 신규 조립공장을 2월 16일 가동. 일본의 첨단생산기술로 85엔 수준의 환율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엔화강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□ 新공장 건설 배경

- 도요타자동차 산하의 차량조립회사인 센트럴자동차는 16일, 미야기공장 개소식에서 국내 제3의 생산거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
- 도요타는 일본 동북지방의 미야기현을 새로운 국내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, 향후 엔고 등, 경영환경이 악화되어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강공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
- 도요타는 1달러=90엔 전후가 현재의 채산라인이지만, 새로 가동한 최신공장을 다른 공장에도 적용시켜, 85엔 수준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
 - * 도요타가 국내에 공장을 개설하는 것은 1993년 이와테(岩手) 공장 이후 처음 (18년만임)
- 엔고로 자동차의 국내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, 도요타 조후지오회장은 “도요타는 기업이념인 「산업보국」을 중요시하고 있어, 눈앞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, 일본의 모노즈쿠리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” 라고 강조

- 동북지방(도후쿠)에는 뛰어난 모노즈쿠리 전통이 있고,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고 언급

□ 미야기현에 新공장을 건설한 이유

- 도요타가 미야기현에 최신공장을 건설한 이유는 △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낮은 노동비용, △정비된 물류 인프라, △견실한 縣민성 등이라고 일본 언론기관은 분석
- 미야기현에는 도요타 자동방직기, DENSO 등 부품회사가 진출해 있는 것도 큰 이유
 - * 도요타 공장유치에 따라 일자리 창출, 철강·비철금속·화학·등 관련 산업이 잇따라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
- 新공장의 부지면적은 44만 평방미터로, 생산능력은 연간 12만대. 현재는 수출용 세단을 생산하고 있으나, 4월부터는 카롤라 생산도 시작할 예정.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차(HV)도 생산할 방침

□ 도요타 미야기공장의 특징

- 新공장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용, 공간,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킨 혁신형 공장임
- 소재지: 미야기현 구로카와군 오오히라
- 부지면적: 440,000m²
- 공장면적: 91,000m²
- 연간생산능력: 12만대



(1) 조립공정

- 차량 앞부분과 뒷부분을 동시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조립라인을 35% 줄이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됨

(2) 도장공정

- 新도료를 채용하고, 건조설비를 간소화. 도장제는 수용성을 사용하고, 건물 소형화 실현으로 냉난방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이산화탄소(CO2) 배출량을 旧공장에 비해 30% 삭감

(3) 차체공정

- 차체반송라인을 고속화하여 로봇 대수 삭감 등 실시. 종래의 방법으로 공장을 신설했을 경우에 비해, 설비투자비를 약40% 감소
- 차량을 천장에서 이동시키는 기존공장과는 달리, 바닥에서 이동시키는 방식을 채택

□ 생산현황 및 향후 생산계획

- 이미 라인에서는 1월부터 수출차인 야리스를 생산. 하루 약250대를 약900명으로 작업
- 4월부터는 현재 사가미하라시(相模原市)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코롤라를 미야기공장으로 이전하여 하루 420대 정도 생산할 계획
-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(HV)등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나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생산도 강화할 방침
- 니이미 부사장은 “일본의 모노즈쿠리 기술은 경쟁력이 있다.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매력 있는 자동차, 원가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자신이 있다” 고 언급

□ 시사점

- 도요타의 국내투자는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 첨단, 저비용 공장건설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,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

<참고자료>

セントラル自動車ホームページ, <http://www.central-motor.co.jp>

日本経済新聞(2011.02.16)